

전체 주제:

하나님의 뜻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함

성경: 마 6:10, 눅 11:1, 요일 5:14-15, 요 15:4-5, 7

- I.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뜻을 갖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전에 땅에서 사람의 뜻이 그분의 뜻에 반항하기를 원하신다 — 마 6:10, 요일 5:14-15.
- A. 우주 안에는 세 뜻, 곧 신성한 뜻과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께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선한 기쁨을 위해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표현하고 그분께 다시 반항하기를 원하신다 — 엡 1:5, 11, 사 14:12-15, 마 6:10, 7:21, 26:39, 빌 2:13.
- B.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고, 홀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동의하고 그분과 하나일 때에만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 골 1:9, 4:12.
1. 단지 뜻이 하늘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에 있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만 땅에서 성취된다 — 마 6:10.
 2.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법칙들에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뜻으로 땅에 있는 사람의 뜻을 없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뜻을 빼앗지도 않으실 것이며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 수 24:15, 22.
 3. 이 땅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뜻이 있을 때에만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에 관계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 — 요 7:17.
 4. 하나님 스스로는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다. 교회의 협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
 5.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 마 6:10.
- II.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과 연결된 믿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 마 6:10, 요 15:7.
- A.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시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
- B.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그분의 뜻을 성취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 요일 5:14.
- C.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 눅 11:1, 18:1, 살전 5:17.
1.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롬 8:26-29.
 2.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없다 — 마 6:10.

3.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우리의 뜻은 주님의 뜻이 된다 — 요 15:7.
 4.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의 출구가 된다 — 요일 5:14-16.
- D.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 마 6:10.
1.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의도하신다 — 엡 1:5, 11.
 2.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도록 하신다.
 3.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말씀드림으로 반향한다 — 요일 5:14.
 4.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다 — 요일 5:15.
- E.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신성한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누리며,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 건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히 10:5-10, 롬 12:1-2, 엡 1:4-6, 9, 11, 22하-23, 3:16-19, 4:16.
1.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 안으로 완전히 섞이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다. 또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이 그 안에 새겨진 사람, 곧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판이 된 그러한 계시의 사람이다 — 삼상 2:35, 3:21, 12:23.
 2.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영께서 우리의 갈망을 그분의 갈망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 안으로 이끄시며, 그분의 갈망과 생각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귀중하고 무게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며, 사탄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 롬 8:26-27, 빌 4:6, 골 4:2, 12, 막 9:28-29, 엡 6:10-20.

III.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를 표현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의 산물이다 — 요 15:4-5, 7.

- A.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1.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갖게 되는 갈망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표현한다 — 엡 1:5, 11.
 2.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는 그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기름 발라지고, 그 결과 우리의 갈망과 의도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과 의도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표현한다 — 요일 2:20, 27, 5:14-15.
 3.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요일 5:14-15.
- B. 영향력 있는 모든 기도, 곧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기도로 여겨질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한 것의 결과이다 — 요 15:4-5, 7.
1.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느낌을 만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게 된다 — 요 15:7.
 2. 하나님의 느낌을 만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분의 갈망을 우리 안에 갖게 될 것이다 — 요 15:7.
 3. 그분의 갈망은 우리의 갈망이 될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망에 따라 기도할 것이다.
 4. 주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 마 6:10.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땅이 하늘을 통제함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십시오.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결정하셨으므로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능히 강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하늘이 무언가를 하기 원하지만 하늘이 먼저 할 수 없고 반드시 땅이 일해야 하늘이 일하게 된다.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위치에 근거한다. 땅이 제이의 위치에 서 있지만 또한 제일의 위치에도 서 있는 것이다. 언제나 땅이 움직여야 하늘이 움직인다. 하나님은 땅이 하늘을 움직이기 원하신다.

조화(일치)된 의지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땅이 하늘을 통제하도록 하셨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신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여기서 말한 시간은 두 영원 사이의 시간을 가리킨다.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가 있는데 이 두 영원 사이에 있는 것을 가리켜 시간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자유로이 하실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받으신 제한이다. 창세기 2장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갖고 계시고, 사람도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즉시 제한을 받으신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탁자와 의자가 있고 바닥과 천장이 있는 상태에 당신 혼자 있다면, 여러분은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탁자, 의자, 바닥, 천장은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만일 땅의 모든 것이 영이 없는 물질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쪽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돌이나 나무나 탁자나 의자와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으신 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없고, 사람이 원하는지의 여부와 기꺼이 하겠는지의 여부를 물어셔야 했다.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나 탁자나 의자를 대하는 것같이 사람을 대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통과하게 할 수도 있고 저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영원 사이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 안에서 제한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영원(영원 미래) 안에서 조화된 의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고 조화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을 탁자 위에 놓으면 그렇게 놓고 책꽂이에 꽂으면 그대로 꽂히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나 책은 자유 의지가 없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이 누구에 의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책과 같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그분에게서 얻은 자유 의지로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원 미래 안에서 사람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로 합해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성취될 때, 사람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합해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 안에는 자유 의지가 있고, 모든 자유 의지는 영원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합해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비록 사람에게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가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조화(일치)된 의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원 미래 안에서도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울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의지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제한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지만 사람은 몇 가지 일밖에 하지 않기도 한다. 하나님은 크게 하려 하시나 사람은 작게 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작게 하시려는 것을 사람은 크게 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를 잃어버리셨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교회는 두 번째 영원(영원 미래) 안에 있을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은 교회의 제한을 받는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신다. 영원 안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 오늘날 교회가 먼저 서 있는 것이다. 그때 영원 안에서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뜻 편에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먼저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 교회에게 자유 의지가 있지만 교회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시켜야 한다. 마치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자유 의지가 없는 것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그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 둘 때,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이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분을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서 있는 위치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집회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끌어내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교회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해 거듭난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고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사람들의 뜻을 말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 위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땅에 있는 의지가 결정하고 찬성한 후에야 비로소 행동을 취하신다. 그분은 땅의 의지를 돌아보지 않고 강탈하여 단독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땅에서의 의지가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다. 땅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땅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지를 얻으셔야 한다. 이렇게 조화(일치)된 의지는 하나님께 지극히 큰 영광이다!

세 가지 큰 원칙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독으로 행동을 취하시거나 단독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신 후에 땅 위의 자유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비로소 행동을 취하신다. 만일 하늘의 뜻만 있다면 그분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다. 땅에서도 그것을 원할 때 하늘의 행동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사역이다. 형제자매들은 교회의 사역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단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는 어떻게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는가? 그것은 땅에서 기도함으로써이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고 대수롭지 않으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의 일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입을 열어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 교회 안에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용도가 별로 없게 된다.

많은 영적 수양을 위한 기도나 교통을 위한 기도나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일을 위한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 수양을 위한 기도나 교통을 위한 기도나 간구하는 기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다. 일을 위한 기도와 사역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

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기도란 바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 내는 것이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일종의 선포이다. 교회의 기도란 바로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선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역의 기도의 세 가지 큰 원칙을 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뜻을 말해 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주님은 17절에서 교회를 언급하시고, 이어서 여기에서 ‘여러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곧 교회이다. 이 절의 의미는 교회인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묶일 것이며, 교회인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 마음대로 하실 수 없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하실 수 없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은 엄숙한 원칙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지 외에 또 하나의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만으로 일을 하실 수 없다. 이 자유 의지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길이 없다.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 정도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교회 안에 두셨다. 교회가 높고 큰 위치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높고 큰 위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만일 교회의 능력이 작고 제한적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높고 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마치 수도국의 저수지는 큰데 여러분 집에는 작은 수도관밖에 없다면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집에 더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오기 원한다면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반드시 커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분량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교회의 분량이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분량을 결정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분량을 결정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먼저 교회가 그분과 함께 서 있게 하신 다음에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단독으로 하실 수 없고 반드시 교회가 그분께 협력해야만 하실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이다.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교회는 마치 수도관과 같다. 수도관이 너무 작다면 창강(長江)과 같은 많은 물이 있어도 별로 물을 흘려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지만 반드시 땅에서 움직여야 일하실 수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묶어야 할 것들과 풀어야 할 것들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그분과 상반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과 물건들이 묶일 수 있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되는 많은 것들과 거룩하고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이 해방되기를 바라신다. 문제는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묶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묶고, 풀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푸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땅이 하늘을 통제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을 통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의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저지할 가능성은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게 할 가능성은 없지만 저지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시도록 요구할 수는 없어도,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한을 줄 수는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 싫은 일을 하시도록 요구할 수는 없어도 그분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방해할 수는 있다.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보았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의 눈은 미래를 보아야 한다. 어느 날 하나님은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 되는 단계에까지 확대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날 것이고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

님은 하늘에서 풀기 전에 교회가 먼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묶기 전에 교회가 먼저 땅에서 묶기를 원하신다. 하늘은 먼저 일하지 않고 항상 땅의 일을 좇아 일한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좇아 일하신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한 가지 일에 대해 말하며, 그다음 절들에서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보았다. 그 한 가지 일은 곧 어떤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그에게 권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한 것이다. 혹 죄를 지은 그 형제는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이 나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긴다면 난 집회에 가지 않겠소. 당신들이 있는 곳은 있을 만한 곳이 못 되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직 많소”라고 말할 것이다. 그다음 절들에서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시기를 보자.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기로 결정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실 것이고, 교회가 그를 세리와 같이 여기기로 결정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그를 세리와 같이 여기실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가 땅에서 한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단지 한 가지 일로 이 원칙을 증명하셨을 뿐이다. 이 원칙은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도 하신다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시게 된다. 이 한 가지 일에 이런 원칙이 적용될 뿐 아니라 수천만 가지의 일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의 일은 단지 하나의 예이며, 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 그 원칙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이 그릇 안에 두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다. 땅에서 원한 것을 하늘에서도 원하고, 교회가 원한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교회 안에서 저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성취될 수 없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잠그면 물이 막히게 된다. 여러분은 물이 흐를 때의 압력이 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물이 막힐 때의 압력이 세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다 알듯이 물이 흐를 때 압력은 약해지고 물이 막히면 압력이 오히려 세진다. 교회의 기도는 수도관이 뚫리는 것같이 물을 흘러 내보낼수록 압력이 감소된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수도관이 막힌 것과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압력은 더욱 세진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러한 부담을 어느 형제나 자매 또는 교회 전체에게 맡기신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고 직분을 다한다면 기도할수록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 교회가 한 번 기도할 때 조금 가볍게 되고 기도를 두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한다면 더욱 가볍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 속에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압력이 여러분을 누를 때 삼십 분이나 한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가벼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에게 알려 주시고,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이 점에 있어서 교회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손안에서 교회는 별 쓸모가 없게 된다. 교회의 다른 면이 다 좋다 할지라도 이 점이 나쁘다면 교회는 별 용도가 없다. 교회의 가장 큰 용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통행되게 하는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22권, 교회의 기도 사역, 177-187쪽)